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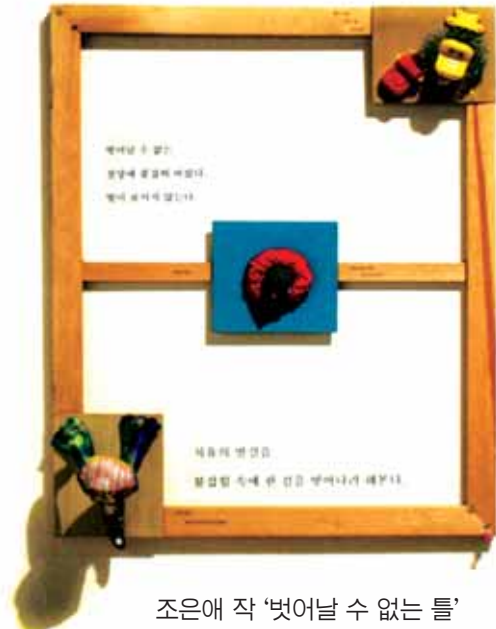
문화

행복한 책임기

나카노 교코의 '무서운 그림' <세미콜론 刊>

20세기 초 독일 사상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최초로 아우라(aura)를 예술 용어로 사용했다. 아우라란 작품이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도 미묘한 분위기를 말한다. 개성과는 또 다른 작가의 본질이라고 할까. 작가의 본질은 작가가 처한 사회적 시대상과 개인적 삶이 강렬하게 조우할 때에 발생한다. 이때 작가의 맥박은 거침없이 빨라지고 심장은 요동친다. 예리한 눈에 각인된 세상은 섬세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물이 진본(眞本)이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아우라의 순도에 따라 작품성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서운 그림'은 명화를 텍스트 삼아 그것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화가의 개인사, 그림 속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이면에 숨겨

어찌 되었든 그 위치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른 채로 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파국은 해일처럼 몰아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순식간에 전후로 지각이 확장되어 가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공포의 본질이라라."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위기를 모르는 것 자체가 공포의 본질이라니. 작가의 해석은 놀랍다. 그렇다면 공포는 멀리 있지 않다. 르동의 '키르롭스'의 눈(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르롭스'는 의눈이다. 바깥세상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밖에 볼 수 없는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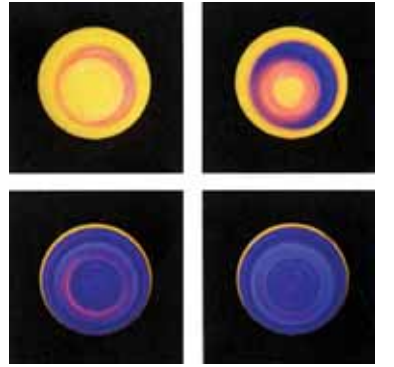
조은애 작 '벗어날 수 없는 틀'

갤러리나 미술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심리적 문턱은 여전히 높다. 아무리 '미술 대중화'를 외쳐도, 전시관을 찾는 게 멋쩍고 낯설기만 한 일반인들이 적지 않다. 고상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그림 볼 줄 모르다", "작품을 살 것도 아닌데 들어가도 되나"라는 생각에 선불리 갤러리를 찾지 못한다. 어쩌다 들어섰다가도 보는 등 마는 등 하며 휙 지나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일까.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선풍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 낮춘 갤러리를 관객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삼는 작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원지 엄숙한 분위기에 선풍 문을 열기 쉽

지 않은 갤러리 대신, 가깝고 친근한 장소로 느껴지는 공간에서 더 많은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올해 창립한 예술그룹 Arting은 오는 30일까지 '사랑의 소품전'을 간타빌레라는 갤러리에서 연다. 커피숍을 택한 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벽에 하나 가득 걸려있는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다가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조각가 김영희, 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 등이 작품을 내놓아 평소 알고 지내던 작가에게 쉽게 공간을 내

커피숍 벽이, 병원 한 공간이 갤러리로 예술가들, 관람객에 한걸음 가까이

예술그룹 Arting, 카페 칸타빌레서 '사랑의 소품전' 현대미술가회 작가 12명, 총장로 '커피홀릭'서 '樂전' 조은애, 선이교문치과서 치아소재 작품 전시



김영희 작 'Space composition'



임수영 작 '일상으로부터'

매혹적인 명화에서 섬뜩한 공포를

진 무서움의 실체를 밝힌다. 무서움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곧 아우라를 형성한다. 그래서 책 제목에 '무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우선 책 표지에 나온 그림을 보면(조르주 라 투르의 '사기꾼'의 일부분) 한 명의 순진한 청년을 둘러싼 세 명의 사기꾼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좌측에,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이 카드를 들고 있다. 눈동자를 옆으로 돌리는 여자가 장녀다. 술병을 쥔 한녀도 같은 과거라는 것을 눈초리가 말해준다. 숨겨 놓은 카드를 뒤에서 빼는 남자가 한녀 뒤에 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청년은 자신의 폐만 열심히 들여다본다. 나카노 교코는 청년을 두고 이렇게 평한다.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

나와 있다. 무척이나 두려운 노릇이다. 왜냐하면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드뷔시·베토벤... 겨울밤의 감동

양재미 바이올린 독주회, 12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 독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4회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양씨는 광주예고 재학중 호주 퀸즐랜드 국립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조기 유학을 떠나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시네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난 2006년 귀국,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피아노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가 편곡한 '골리워의 케이스위크',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베토벤의 '로망스 작품번호 50번'과 사이의 '소나타 제7번'이다. 현재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



인 앙상블 루미나시아 리더로, 모나루 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씨는 전남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피아노 반주는 서현일씨가 맡았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백천류 대금 산조 보존회 송년음악회 8일 전통문화관 서석당

강백천류 대금 산조 보존회 송년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5시30분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동래학춤(조철현·사진), 윤운석류 아쟁산조(공성재·이여송), 시나위 연주(조철현·공성재·이여송·공정희) 등이 이어지며 김기주·변정섭·기예석·류명희·서명주 등 화원들이 합

계 연주하는 대금 산조와 '한오백년', '밀양아리랑' 등 민요, '떠나가는 배', '바위고개' '올드랭 사인' 등을 만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무대는 강백천류 대금산조 전바탕 연주, 남원 출신인 월담 강백천류 대금산조는 여타 산조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과로 이번 무대는 국립기록보존소에만 남아 있는 고 강백천



강백천류 대금산조 전수 조교인 조철현씨다.문의 010-9650-407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생의 가락을 원형대로 재현한 산조 전바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연주자는

황지해, '올해의 조경인' 특별상

정원디자인사 황지해씨가 올해의 조경인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지해씨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회 '올해의 조경인'상 시상식에서 조경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제정, 올해로 15회째

를 맞는 올해의 조경인상은 국내 조경 전문지인 월간 '환경과 조경'이 한 해 동안 조경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수여하는 상이다. 황씨는 올해 180년 전통의 영국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 2012) 쇼 가든 부문에 출품한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지역 화원



(Forbidden Garden)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수상해 한국 조경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황씨는 올해 제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도 활동했다. /김미은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명일명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1천원  
 와인 or 생맥주 1잔 1천원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식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식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